

하신다거나 미래 가능성을 위해 씨 뿌리는 역할을 하시는 걸 보면 직관형(N) 같지.

원리원칙을 좋아하고 진실을 중시하시는 걸 보면 사고형(T)인데, 인간관계에 관심이 많고 헌신적이며 동정심이 많은 걸 보면 감각형(F) 같아.

위선과 불법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엄하게 꾸짖으시는 걸 보면 판단형(J)인데, 여유롭고 포용적이며 많은 일을 이해로 수용해주시는 걸 보면 인식형(P) 같잖아.

이처럼 MBTI를 공부하는 이유는 필요와 상황에 따라 유형을 옮겨 다닐 수 있는 유연함을 익히기 위해서야. 가령 본인이 내향형이라 해도 필요에 따라 외향형처럼 행동해야 할 때가 있거든. 또는 논리적이어서 냉정해 보일 수 있는 사고형이라면 정서와 감정 표현하는 법을 익히면 좋겠지. 예컨대 ISTJ 유형은 일처리에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장점만 그대로 살려 나이 들면 깐깐하고 꼰대 같은 노인으로 느껴질 수 있단 말이야. 이럴 때 고집스러움을 버리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참으로 사려 깊고 친절한 분인데 일할 때는 꼼꼼하다는 칭찬을 받지 않을까.

타고난 성향을 바꾸지는 못해. 하지만 부족한 면을 채울 수는 있어. 한마디로 MBTI로 파악한 약한 성향을 보완해 자신을 완성하는 도구로 삼아야 해.

그러려면 우선 자신의 MBTI 성향을 정확히 알아야겠지. 어떤 사람들은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데, 성격유형은 타고난 것이라 변하지 않아. 다만 직업에 적응하다 보니 성격이 조금 바뀐 것(occupational type)처럼 느끼거나 검사할 때 본인이 선망하는 유형(envious type)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왜곡이 생기는 거야. 또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엉터리 간이검사나 흥미 위주로 변형된 도구로 검사하는 바람에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

또 자주 듣는 말 중에 “저는 외향형으로 나오는데 내향형 기질도 있어요”라고 하더라. 당연하지. 자네는 오른손잡이지만 왼손도 쓰잖아. 사람들은 모든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 다만 조금 더 익숙하고 편하게 쓰는 성격성향이 무엇이냐를 보는 ‘방향’ 검사일 뿐이야.